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강진규*
이혜영**

국문요약

정부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에 관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창업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창업지원정책으로 인하여 창업기업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창업역량의 매개효과에 기반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정부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창업지원정책을 대상으로 창업역량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어 연구했다는 의의가 존재한다. 분석결과, 창업역량은 기술사업화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컨설팅지원과 창업성과(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와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지만 창업자금지원, 창업마케팅지원과 창업성과(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와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창업역량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창업, 창업지원정책, 창업성과, 창업역량, 창업컨설팅

I. 서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공동체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의 창업과 성공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성공적인 창업은 신기술 개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체와의 유기적 연계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는 사회적 자산으로 중·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는 개인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령을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창업 지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 제1저자

** 교신저자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23).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국가는 정부차원의 창업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정채된 고용환경을 탈출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창업에 관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창업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창업은 창업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사되는 만큼 창업 당사자의 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결정은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창업 아이디어가 훌륭하다는 것만으로 저절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아이디어 자체가 쓸모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수의 인적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거대한 자본의 투자를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보상의 크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창업에는 적지 않은 위험이 수반 된다는 것이다(이용희 외, 2016; 윤병선·서영욱, 2016).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의 성과를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역량을 증진시켜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박남규 외, 2015), 창업교육, 정부지원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김종명, 2019),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분석(정경희, 2020),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을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한 연구(김성식 외, 2020),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장선희, 2021)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특수한 창업정책이나 개별적인 창업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으로서 정부의 다양한 유형의 창업지원정책을 포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기업의 창업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창업역량을 중심으로 창업지원정책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하여 지원유형별로 구분하여 창업성과를 살펴보고자 하며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 사이에서 창업역량이 실제로 매개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을 기술사업화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지원, 창업마케팅지원으로 분류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유형별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창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

1)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사업화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지원, 창업마케팅지원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사업화지원은 연구자에 따라 적용분야 및 적용범위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우선 “기술사업화”에 대한 개념으로 기술을 이용기술상용화를 통해 각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노두환 외, 2016). 즉 연구개발 또는 외부용역을 통해 획득한 신기술을 제조 활동에 투입하여 제품의 제작, 제품의 출하,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수립에서 제품의 수명주기 연장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모든 제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Lee, 2014). 따라서 기술사업화지원정책은 창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지원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둘째, 창업교육은 사업의 계획부터 사업화 과정까지 창업에 필요한 지식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창업능력 및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윤희, 2004). 또한 창업교육은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하지는 않더라도 잠재적 창업자로서 사업 경영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신윤철, 2007).

셋째, 창업자금지원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 및 각 지자체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예비)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창업자금 지원은 창업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신유섭, 2013).

넷째, 창업은 실현 과정은 각각 창업단계, 기술개발단계, 상품화단계, 사업화단계로 구분하며 창업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치밀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개인 수준에서 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 같은 관점을 반영하여 개인의 창업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실효적이기도 하다. 또한, 창업자가 창업을 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상담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창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창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 초기에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또한 내수시장이 크지 않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내 마케팅뿐만 아니라 해외마케팅에 대한 지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마케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마케팅방안은 다품종소량과 디자인이 강한 제

품에 중소기업의 유연한 사고와 개방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은경아, 2006).

2) 창업성과

일반적으로 창업성과란 창업기업의 목표가 경영계획 하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한 결과물로서 경영전략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하며(고세훈, 2011), 또한 창업성과는 창업기업의 목표달성도,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획득을 위한 시장환경의 개척능력,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한 창업기업의 적응 및 생존능력, 인적자원개발과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창업기업의 능력, 창업기업의 수익성 또는 생산성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김의근, 2007).

김윤의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객만족성과 재무적성과라고 하였으며(김윤의, 2013), 김윤진과 조중연의 연구에서는 창업성과의 측정 요소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김윤진, 2014, 조중연, 2016).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성과의 의미는 다양한 측정 요소와 방법을 통해 측정하는 성과에 따라 재무적인 성과와 비재무적인 성과로 구분하거나 시간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성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장선희, 2021).

재무적성과 위주의 창업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 재무 평가 시스템은 장기적 성과를 간과한다고 주장하였다(Polakoff, 1992). 재무적성과는 과거 지향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 변화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였고(Fisher, 1992). 재무적인 성과는 기업의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를 최적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재무성과에만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비판하였다(신성욱외, 2009). 즉, 재무적성과는 창업기업의 성과를 온전히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창업자 및 창업의도, 조직과 관련된 내·외부적 여러 요인들을 함께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김종식, 2017).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평가이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성과 측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이 성과평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윤진, 2014). 이에 재무적인 성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비재무적 성과의 측정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Johnson & Kaplan, 1987; 최재성, 2013).

창업성과의 선행연구사례를 분석해보아도 기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더 이상 재무적인 성과의 측정만으로는 창업기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되면서 점차 비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에 관심을 돌리는 추세이다(안운석, 2003).

2. 창업역량

창업역량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을 수행 및 성공할 수 있는 창업자의 전반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창업역량을 정의하였고(Baum et al, 2001), 창업자의 직무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창업가의 전체적인 내적특성을 창업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창업자의 창업관련

경험, 훈련정도, 교육이수, 개인적인 특성, 창업관련 스킬 그리고 지식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특성으로 보았다. (Man et al, 2002). 또한 창업역량을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창업자의 가치,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총합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창업역량의 구성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다(Morris et al., 2013).

창업자의 창업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창업경험이나 사업 또는 동종에서의 충분한 경험보유와 창업에 대한 기능 및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충분한 경영 관리능력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장선희, 2021). 여기에 창업기업의 목표설정을 위한 충분한 리더십, 창업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비전수립,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창업성과를 창출할 역량과 능력 보유 등이 창업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창업역량은 기술창업 및 벤처기업 창업 등의 경영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직무에서 효율적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이룰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으로 개념화 하였다(Prahalad, & Hamel, 1990). 최근에 창업역량은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의 성공요인으로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많다.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의의

1)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남규 외(2015)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종류의 창업지원정책(교육지원,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은 창업가정신에는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창업의지에 대해서는 창업가정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정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남규·김명숙·고종욱, 2015).

시니어 세대의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정책과 경영 지원정책이 창업성공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유상정, 2016). 또한, 창업지원 사업이 청년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독립 변수로 창업지원 사업의 하위변수로 창업지원금, 멘토링 프로그램, 창업교육 프로그램, 공간지원을 설정하였는데 종속변수인 창업성과에 공간지원과 멘토링 프로그램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증준, 2017).

윤소영(2017)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산업분야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창업지원 사업의 5가지 하위변수(창업경영 지원, 창업교육 지원, 창업컨설팅 지원, 창업자금 지원, 물리적 시설 지원)가 종속변수인 창업성과의 2가지 하위변수(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하였다(윤소영, 2017).

이주연(2018)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지원사업의 유형으로

공간지원, 자금지원, 교육멘토링지원, 홍보마케팅지원 등 4가지 사용되었는데 특히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창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였을 때에 기업의 재무적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하였다(이주연, 2018).

정경희(2020)의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분석에서 초기 창업기업 성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자금,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공간)가 매출에 영향을 주었고 예비단계에서는 창업성과에 영향이 없었으며, 창업단계는 창업멘토링, 성장단계는 창업자금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고용은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가장 큰 요소는 인력지원이며, 그 다음으로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경영지원, 시설/장비지원, 교육지원, 멘토링지원, 자금지원, 네트워크지원, 그리고 컨설팅지원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성식·전병훈·윤성임, 2020).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지원정책 변수로는 교육지원,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 세 개의 변수를 검토하였으며, 창업가정신 변수로는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 세 개의 변수를 검토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로 나왔으며 창업의지에 대해서는 창업가정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욱·한동희·강태원(2019)은 창업가 역량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전라북도의 7년 미만 창업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창업지원제도는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성과 사이에 매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김종명(2019)은 창업교육, 정부지원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교육, 정부지원, 기업가정신이 종합적으로 창업의지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창업관련 정책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정경희(2020)의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분석에서 초기 창업기업 성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창업지원정책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최근 3년간 창업기업 대상으로 연구하여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장단계별 예비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창업단계는 창업멘토링 지원, 성장단계는 창업자금 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고용은 창업 성장단계에 따라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김성식·전병훈·윤성임(2020)은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지원기관 및 실무자에게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자금지원, 교육지원, 시설/장비지원, 네트워크지원, 멘토링지원, 컨설팅지원, 마케팅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과 종속변수로 창업성과인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를 분석하여 이상치를 검증하였다.

장선희(2021)는 정부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유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사업의 유형을 살펴보고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에 적합한 창업지원사업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2)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필요성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창업정책 또는 개별적인 창업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효과를 연구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창업기업의 창업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부 논의되고 있지만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창업역량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하여 지원유형별로 구분하여 창업성과를 살펴보고자 하며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 사이에서 창업역량이 실제로 매개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을 기술사업화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지원, 창업마케팅지원으로 분류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유형별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창업역량의 매개효과에 기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창업컨설턴트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러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역량이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창업정책은 정책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창업컨설턴트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기업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통하여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창업지원정책으로 인해 실제 창업기업에게 나타난 성과(영향)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컨설턴트를 창업컨설턴트로 정의하며, 창업컨설턴트는 창업준비 단계부터 사업화과정까지 상담, 자문,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로 창업기업이 지원받은 창업지원사업과 창업성과를 잘 파악하고 있다.

Ⅲ. 연구모형

1. 가설의 설정

1)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김성식·전병훈·윤성임(2020)에 의하면, 정부지원정책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나타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독립변수 중 창업성과에 대한 효과크기가 가장 큰 요소는 인력지원이며, 그 다음으로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경영지원, 시설·장비지원, 교육지원, 멘토링지원, 자금지원, 네트워크지원, 그리고 컨설팅지원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경희(2020)의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정책이 초기 창업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창업지원의 효과를 다방면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던 학술 연구들(박경주, 2006; 박상욱·김연중·송인방, 2022; 최종열, 2013; 조상미 외, 2019)이 이루어졌다. 특히 장선희(2021)는 정부창업지원사업과 창업성과의 관계를 창업도약패키지 지원기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는데, 기술사업화, 창업교육, 창업자금, 창업멘토링, 창업마케팅은 모두 기업의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의 창업역량은 기업의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1-1 기술사업화지원은 재무적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1-2 기술사업화지원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1-3 창업교육지원은 재무적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1-4 창업교육지원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1-5 창업자금지원은 재무적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1-6 창업자금지원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1-7 창업컨설팅은 재무적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1-8 창업컨설팅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1-9 창업마케팅지원은 재무적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1-10 창업마케팅지원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2) 창업역량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서영표(2021)는 기술창업기업 CEO의 역량지수와 창업가적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의 CEO의 역량지수와 창업가적 역량이 기업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하였으며 특히, 조직창의성과 환경 불확실성에 대

한 대처 역할이 중요한 역량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비슷한 관점에서 빅해근(2017)의 연구는 창업초기기업 기술사업화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창업자 기술능력 및 마케팅능력을 조절요인으로 설정하여 제시된 요인이 실제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 외에도 개인과 집단, 예비 창업자, 기업 CEO 등의 창업관련 역량이 기업 성과 혹은 예상되는 목표달성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는 학위논문(송세영, 2022; 김상만, 2019; 김성진, 2022)으로 최근까지 발표된 바가 있다. 이에 창업역량은 창업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 창업역량은 창업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2-1 창업역량은 재무적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2-2 창업역량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3)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역량과의 관계

장영혜·현선진·김판수(2021)는 정부 창업지원 만족과 창업가의 창업역량 및 창업성과의 관계를 정량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의 만족도는 창업가들의 기술창업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창업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 수준은 사업화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민첩성과 동적행동과 같은 창업가의 행동적 역량을 통해 간접적 효과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창업지원을 매개로 하여 창업가의 창업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소개한 연구(안태욱·한동희·강태원, 2019)에서도 창업지원과 창업 역량 간에 긴밀한 인과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강현·이호택(2019)의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창업가정신과 창업기업역량 그리고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가의 창업정신과 창업역량을 신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 신장은 궁극적으로 창업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창업지원과 창업역량의 관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김도희(2021)는 청년 창업가에 대한 창업지원이 창업 역량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역량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3.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역량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3-1 기술사업화지원은 창업역량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3-2 창업교육지원은 창업역량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3-3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역량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3-4 창업컨설팅은 창업역량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3-5 창업마케팅지원은 창업역량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4) 창업역량의 매개효과

창업자의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이나 또는 동종에서의 충분한 경력 및 경험보유와 창업에 대한 이해 및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충분한 사업경영 관리능력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창업 방향설정을 위한 충분한 창업리더십 창업 기업의 목표와 비전수립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창업성과를 창출할 능력 보유 등이 창업자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상화는 창업역량의 특성을 창업에 필요하고 성공창업으로 이끌 수 있는 창업자의 창업지식, 능력, 태도로 정의하고 창업역량의 구성요소로 네트워크역량, 시장지향성역량, 마케팅 역량으로 제시하였다(이상화 2015). 김문성·이준우(2017)는 전략적 역량 창의성 역량 기술적 역량, 시장 감지역량, 네 가지로 창업가 역량을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창업역량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요소는 총 13가지로 Morris et al(2013)는 위기관리와 완화, 강력한 비전 제시, 게릴라 기술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리소스 레버리징, 창의성 및 창의적 문제해결 끈기 인내 집중과 적응, 회복력, 가치의 창조, 기회인식 및 평가, 자기 효능감을 창업역량 요소로 제시하였다(장선희, 2021). Krueger & Brazeal(1994)은 창업효능감은 예비창업자가 갖춰야 할 창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필수 역량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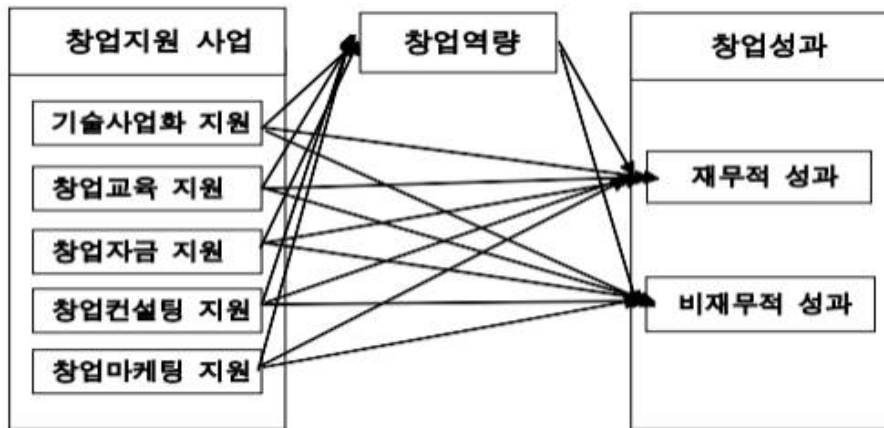
Morris et al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역량특성을 기회인식 및 평가 위기관리, 비전, 끈기, 인내, 문제해결 능력, 창의성, 재무적 역량, 회복력 집중 및 적응, 네트워크구축, 게릴라스킬 가치창출 자기 효능감 등으로 분류 및 제시하였다(Morris et al, 2013). 이에 창업역량은 창업지원사업과 창업성과의 매개역할에 있어서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4. 창업역량은 창업지원사업과 창업성과의 매개역할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4-1 창업역량은 기술사업화지원과 재무적성과의 매개역할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4-2 창업역량은 기술사업지원과 비재무적성과의 매개역할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4-3 창업역량은 창업교육지원과 재무적성과의 매개역할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4-4 창업역량은 창업교육지원과 비재무적성과의 매개역할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4-5 창업역량은 창업자금지원과 재무적성과의 매개역할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4-6 창업역량은 창업자금지원과 비재무적성과의 매개역할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4-7 창업역량은 창업컨설팅지원과 재무적성과의 매개역할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4-8 창업역량은 창업컨설팅지원과 비재무적성과의 매개역할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4-9 창업역량은 창업마케팅지원과 재무적성과의 매개역할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 4-10 창업역량은 창업마케팅지원과 비재무적성과의 매개역할에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해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구분하였으며 예비조사는 본 조사에 사용될 설문지의 문항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 문항중 이해도가 낮은 문항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2022년 9월1일부터 5일간 수도권의 현직 창업컨설턴트 20명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공지하고 실시하였으며 문항이 이해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살폈으며, 문제가 된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 컨설턴트 2인의 자문을 얻어 수정하였다.

응답자의 문항 이해도 및 응답 충실성을 최대한 제고한 이후 검증받은 설문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전국에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현직 창업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표본추출 방법은 지역별 인구수와 컨설턴트의 거주분포 및 활동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대상의 지역별로 표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에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연구자가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관계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았으며 연구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후 실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조사 대상에게 배부된 설문지는 총 400부였으며, 이 중 350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37부를 제외하고 313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설정된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3.0 프로그램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ootstrapping 방법으로 2,000 번의 반복 연산 과정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13)

Variable		n	%
성별	남성	274	87.5
	여성	39	12.5
연령	30대 이하	20	6.4
	40대	64	20.4
	50대	137	43.8
	60대 이상	92	29.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0.6
	학사	90	28.8
	석사	132	42.2
	박사	89	28.4
거주지	서울	101	32.3
	경기·인천지역	104	33.2
	강원지역	9	2.9
	충청지역	18	5.8
	호남지역	27	8.6
	영남지역	49	15.7
	제주지역	5	1.6
전문분야	세무·회계	46	14.7
	자금	35	11.2
	인사·조직	32	10.2
	마케팅	132	42.2
	생산관리·품질	35	11.2
	기술	33	10.6
컨설팅 전 직장경력	5년 미만	31	9.9
	5~7년 미만	30	9.6
	7~10년 미만	27	8.6
	10~15년 미만	55	17.6
	15년 이상	170	54.3
컨설팅 경력	3년 미만	60	19.2
	3~7년 미만	71	22.7
	7~10년 미만	49	15.7
	10~15년 미만	49	15.7
	15년 이상	84	26.8
연 수입	5천만원 미만	97	31.0
	5~8천만원 미만	104	33.2
	8천~1억 미만	56	17.9
	1억 이상	56	17.9

3. 척도의 구성과 신뢰도 및 타당도

설문 문항의 개발을 위하여 기존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및 중소벤처기업부(2022)의 창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총 6문항을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창업역량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장선희(2021)가 제시한 마케팅역량, 이기형(2019)이 제시한 기업역량, 장선희(2021)가 제시한 네트워크역량, 김춘근(2014), 남정인(2013)의 전략적사고역량, 황경연·성을현(2015)이 제시한 기술사업화역량, Chandler & Jansen(1992)이 제시한 기술적 역량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재무적성과는 Chakravarthy(1986), Govindatajan & Gupta(1985)가 제시한 문항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측정 문항은 매출액증가율, 시장점유율 증대, 영업이익증가율, 창업투자유치, 자기현금흐름 개선, 부채비율 감소 등 6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비재무적성과의 측정방법은 신규고객 증가, 고용성과 향상, 지적재산권 성과, 고객만족도 향상, 직무만족도 향상,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대해 6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인	변수구분	측정변수	출처	측정척도
창업지원 사업	1. 기술사업화 지원	① 전문인력 지원	Wind(2005), 이상호(1990) 윤석철(2003), 송건호(2009) 이동석(2009), 박순철(2009) 송세찬(2008), 이성화(2012) 김종명(2019), 장선희(2021) 중소벤처기업부(2022)	리커트(Likert) 5점 척도
		② 연구지원 및 기술지원		
		③ 장비 및 공간지원		
		④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지원		
		⑤ 최신기술동향		
		⑥ 경영지원		
	2. 창업교육 지원	① 기업가정신 교육	Vesper & McMullan(1998) 김주미(2007), 박재완(2011) 윤남수(2012), 서성열(2019) 김종명(2019), 장선희(2021) 중소벤처기업부(2022)	리커트(Likert) 5점 척도
		② 최신 기술 교육		
		③ 세무회계, 인사 교육		
		④ 지식재산권 교육		
		⑤ 마케팅 교육		
		⑥ 창업자금 교육		
	3. 창업자금 지원	① 운전자금 대출지원	전봉준(2012), 신유섭(2013) 박남규(2015), 김민정(2016) 김종식(2017), 임승준(2017) 이창은(2021) 중소벤처기업부(2022)	리커트(Likert) 5점 척도
		②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③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지원		
		④ 창업지원 공모 자금지원		
		⑤ 연구개발비 지원		
		⑥ 시설자금 지원		
	4. 창업컨설팅 (멘토링) 지원	① 세무회계 컨설팅 지원	Kram(1985), Shea(1992) 남정인(2013), 김진모(2013) 박용호(2014), 임승준(2016) 박상욱(2021) 중소벤처기업부(2022)	리커트(Likert) 5점 척도
		② 창업자금 컨설팅 지원		
		③ 인사, 조직 컨설팅 지원		
		④ 마케팅 컨설팅 지원		

5. 창업마케팅 지원	⑤ 생산관리, 품질 컨설팅 지원	박정형(2002), 은경아(2006) 김장권(2011), 최동락(2012) 김순태(2013), 이도겸(2015) 신교성(2017), 장선희(2021) 중소벤처기업부(2022)	리커트(Likert) 5점 척도
	⑥ 기술관련 컨설팅		
	①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지원		
	② 브랜드 개발 지원		
	③ 카달로그, 홍보영상 제작지원		
	④ 온라인 마케팅 지원		
	⑤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지원		
6. 창업역량	⑥ 제품의 사진촬영, 상표, 디자인		
	① 마케팅 역량 증대	Corbin(1993) Spencer & Spencer(1994) 전인오(2012), Morrisetal(2013) 오재우·양동우(2014) 백서인 외(2015) 윤병선·서영옥(2016) 이상화(2016) 김문성·이준우(2017) 김수진(2019), 윤희현(2019) 장선희(2021)	리커트(Likert) 5점 척도
	② 기업 역량 증대		
	③ 네트워크 역량 증대		
	④ 전략적 사고 역량 증대		
	⑤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⑥ 기술적 역량 강화		
창업성과	재무적성과	Bonma & Clark(1988) Hewett & Bearden(2001) 이동주(2002), 고봉상(2004) 김진강(2005), 이윤원외(2009) 최재성(2014), 류재희(2017) 박양우(2018), 장선희(2021)	리커트(Likert) 5점 척도
	비재무적 성과	Stuart & Abetti(1987) Denton & White(2000) 한상국 외(2005) 김윤지(2015), 김종식(2017) 류재희(2017), 박양우(2018) 장선희(2021)	리커트(Likert) 5점 척도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자료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추출 방법을 실시하고, 요인의 해석을 단순화하는 배리맥스 회전 방법을 적용하였다. 요인은 고유값 1.0을 기준으로 추출하였으며, 측정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이상이면 해당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Ford, MacCallum & Tait, 1986). 신뢰도는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아래 표(〈표 3〉, 〈표 4〉,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KMO 측도값은 최소 기준치인 .6보다 크고, 측정문항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의 여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통계량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와 측정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표 3〉에서 고유 값이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은 기술사업화 지원, 창업교육 지원, 창업자금 지원, 창업컨설팅 지원, 창업마케팅 지원의 5요인으로 분류되었으

며 모든 요인은 각각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 이상이고, 문항내 적합치도 계수는 기술사업화 지원 .88, 창업교육 지원 .91, 창업자금 지원 .87, 창업컨설팅 지원 .91, 창업마케팅 지원 .92, 전체 .97로 산출되어 창업지원 사업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요인은 6개 문항의 단일요인으로 묶였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 이상으로 나타났다.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91로 산출되어 창업역량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고유 값이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은 재무적 성과 6문항, 비재무적 성과 6문항의 2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 이상이고,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재무적 성과 .92, 비재무적 성과 .90, 전체 .94로 산출되어 창업성과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창업지원 사업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요인	측정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분산(%)	Cronbach's α
창업마케팅 지원	창업마케팅5	.739	4.65	15.50	.92
	창업마케팅6	.671			
	창업마케팅3	.663			
	창업마케팅4	.613			
	창업마케팅1	.613			
	창업마케팅2	.553			
창업교육 지원	창업교육5	.737	4.60	15.32	.91
	창업교육1	.735			
	창업교육2	.712			
	창업교육4	.683			
	창업교육6	.664			
	창업교육3	.623			
창업컨설팅 지원	창업컨설팅4	.775	4.08	13.60	.91
	창업컨설팅2	.763			
	창업컨설팅1	.662			
	창업컨설팅6	.628			
	창업컨설팅3	.562			
	창업컨설팅5	.471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사업화1	.716	3.98	13.28	.88
	기술사업화2	.714			
	기술사업화4	.701			
	기술사업화3	.642			
	기술사업화5	.630			
	기술사업화6	.605			
창업자금 지원	창업자금1	.732	3.31	11.04	.87
	창업자금3	.676			
	창업자금6	.668			
	창업자금5	.603			
	창업자금4	.557			
	창업자금2	.509			
합계				68.74	.97
KMO 측도				.95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435)=7132.73(.000)$	

〈표 4〉 창업역량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요인	측정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분산(%)	Cronbach's α
창업역량	창업역량2	.880	4.18	69.64	.91
	창업역량1	.856			
	창업역량5	.843			
	창업역량6	.843			
	창업역량4	.834			
	창업역량3	.745			
합계				69.64	.91
KMO 척도		.84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15)=1325.25(.000)$			

〈표 5〉 창업성과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요인	측정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분산(%)	Cronbach's α
재무적 성과	재무적 성과3	.840	4.39	36.60	.92
	재무적 성과1	.827			
	재무적 성과4	.799			
	재무적 성과2	.790			
	재무적 성과5	.728			
	재무적 성과6	.578			
비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5	.811	4.04	33.62	.90
	비재무적 성과6	.754			
	비재무적 성과2	.725			
	비재무적 성과3	.713			
	비재무적 성과4	.710			
	비재무적 성과1	.637			
합계				70.23	.94
KMO 척도		.94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66)=2768.08(.000)$			

IV. 분석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창업지원 사업, 창업역량, 창업성과 간의 일반적 경향성 및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창업지원 사업에서는 창업교육 지원이 3.52로 가장 높고, 창업마케팅

지원이 3.24로 가장 낮았다. 창업성과에서는 비재무적 성과가 3.59로 재무적 성과 3.5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왜도 범위는 -.87~-.22이며, 첨도 범위는 -.16~2.75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는 7보다 작으므로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 함을 알 수 있다(Kline, 2005).

상관관계 분석결과, 창업지원 사업, 창업역량, 창업성과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역량($r=.69$, $p<.001$), 창업성과($r=.60$, $p<.001$)와 정(+)의 상관이 있고, 창업역량은 창업성과($r=.76$, $p<.001$)와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313)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창업지원 사업	3.39	.68	-.34	.28
기술사업화 지원	3.41	.78	-.56	.69
창업교육 지원	3.52	.77	-.45	.15
창업자금 지원	3.32	.78	-.51	.54
창업컨설팅 지원	3.49	.78	-.52	.27
창업마케팅 지원	3.24	.85	-.22	-.16
창업역량	3.67	.69	-.75	1.69
창업성과	3.55	.61	-.87	2.75
재무적 성과	3.50	.66	-.68	1.85
비재무적 성과	3.59	.63	-.86	2.42

<표 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N=313)

	1	1-1	1-2	1-3	1-4	1-5	2	3	3-1	3-2
1. 창업지원 사업	1									
1-1. 기술사업화 지원	.83***	1								
1-2. 창업교육 지원	.86***	.66***	1							
1-3. 창업자금 지원	.86***	.62***	.66***	1						
1-4. 창업컨설팅 지원	.88***	.66***	.70***	.69***	1					
1-5. 창업마케팅 지원	.89***	.69***	.69***	.71***	.75***	1				
2. 창업역량	.69***	.58***	.59***	.56***	.65***	.59***	1			
3. 창업성과	.60***	.50***	.49***	.56***	.55***	.50***	.76***	1		
3-1. 재무적 성과	.52***	.44***	.41***	.48***	.49***	.41***	.72***	.95***	1	
3-2. 비재무적 성과	.62***	.51***	.52***	.57***	.55***	.54***	.72***	.94***	.78***	1

* $p<.05$, ** $p<.01$, *** $p<.001$

2. 변수간의 경로분석

1) 적합도 분석

창업지원 사업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를 창업역량이 매개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잔차 평균자승 이중근(Root Mean square Residual: RMR)은 .05 이하의 수준이고,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MSEA)는 .08 이하의 수준이면은 수용할만한 적합도로 간주된다. 또한 TuckerLewis 지수(TLI), 적합도 지수(GFI), 비교적합지수(CFI)는 모두 .90 이상인 경우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2). 연구모형의 수용기준과 적합도 지수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GFI=.928, IFI=.938, CFI=.937, RMR=.018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 양호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표 8〉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수용기준		GFI	IFI	CFI	RMR
		≥ .90	≥ .90	≥ .90	p < .05
χ^2	df	GFI	IFI	CFI	RMR
116.19***	1	.928	.938	.937	.018

***p<.001

2)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1)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금 지원은 재무적성과($\beta=.19, p<.01$), 비재무적성과($\beta=.21, p<.001$)에 정(+)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자금 지원이 높을수록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술사업화 지원, 창업교육 지원, 창업컨설팅 지원, 창업마케팅 지원은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창업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역량은 재무적성과($\beta=.68, p<.001$), 비재무적성과($\beta=.56, p<.001$)에 정(+)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역량이 높을수록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창업역량이 재무적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창업역량이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이 채택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덕희(2005), 송미란(2016), 김종식(2017), 장선희(2021)의 창업기업 대상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기업의 창업역량인 마케팅역량, 기업역량, 네트워크역량, 전략적 사고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기술적 역량은 창업컨설팅트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기업의 성과인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같은 맥락이다.

(3)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기술사업화 지원($\beta=.16, p<.01$), 창업교육 지원($\beta=.14, p<.05$), 창업컨설팅 지원($\beta=.33, p<.001$)은 창업역량에 정(+)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사업화 지원, 창업교육 지원, 창업컨설팅 지원이 높을수록 창업역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창업자금 지원, 창업마케팅 지원은 창업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사업화 지원은 창업역량에 정(+)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창업교육 지원은 창업역량에 정(+)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창업컨설팅 지원은 창업역량에 정(+)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이 채택되고, 창업자금 지원이 창업역량에 정(+)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창업마케팅 지원이 창업역량에 정(+)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이 기각됨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9>과 같다.

<표 9>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Path	B	S.E	β	t	가설 검정결과
기술사업화 지원→창업역량	.14	.05	.16	2.62**	채택
창업교육 지원→창업역량	.13	.06	.14	2.25*	채택
창업자금 지원→창업역량	.08	.06	.10	1.50	기각
창업컨설팅 지원→창업역량	.29	.06	.33	4.78***	채택
창업마케팅 지원→창업역량	.05	.06	.07	.92	기각
기술사업화 지원→재무적 성과	.04	.05	.05	.85	기각
창업교육 지원→재무적 성과	-.08	.05	-.10	-1.56	기각
창업자금 지원→재무적 성과	.16	.05	.19	3.17**	채택
창업컨설팅 지원→재무적 성과	.03	.06	.04	.60	기각
창업마케팅 지원→재무적 성과	-.10	.05	-.13	-1.85	기각
기술사업화 지원→비재무적 성과	.02	.05	.02	.35	기각
창업교육 지원→비재무적 성과	.02	.05	.02	.31	기각
창업자금 지원→비재무적 성과	.17	.05	.21	3.55***	채택
창업컨설팅 지원→비재무적 성과	-.01	.05	-.01	-.18	기각
창업마케팅 지원→비재무적 성과	.03	.05	.04	.65	기각
창업역량→재무적 성과	.66	.05	.68	12.66***	채택
창업역량→비재무적 성과	.51	.05	.56	10.59***	채택

*p<.05, **p<.01, ***p<.001

3) 매개효과 분석

창업기업의 창업역량이 창업지원정책인 정부의 창업지원사업과 창업기업의 성과(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AMOS의 Bootstrapping(2,000 회)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사업화 지원이 창업역량을 경유하여 재무적성으로 가는 간접경로($\beta=.11, p<.05$),

기술사업화 지원이 창업역량을 경유하여 비재무적성으로 가는 간접경로($\beta=.09, p<.05$), 창업교육 지원이 창업역량을 경유하여 재무적성으로 가는 간접경로($\beta=.10, p<.05$), 창업교육 지원이 창업역량을 경유하여 재무적성으로 가는 간접경로($\beta=.08, p<.05$), 창업컨설팅 지원이 창업역량을 경유하여 재무적성으로 가는 간접경로($\beta=.22, p<.001$), 창업컨설팅 지원이 창업역량을 경유하여 비재무적 성으로 가는 간접경로($\beta=.18,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역량은 기술사업화 지원과 재무적성과 간의 관계, 기술사업화 지원과 비재무적성과 간의 관계, 창업교육 지원과 재무적성과 간의 관계, 창업교육 지원과 비재무적성과 간의 관계, 창업컨설팅 지원과 재무적성과 간의 관계, 창업컨설팅 지원과 비재무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창업자금 지원이 창업역량을 경유하여 재무적성으로 가는 간접경로, 창업자금 지원이 창업역량을 경유하여 비재무적 성으로 가는 간접경로, 창업마케팅 지원이 창업역량을 경유하여 재무적성으로 가는 간접경로, 창업마케팅 지원이 창업역량을 경유하여 비재무적성으로 가는 간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역량은 기술사업화 지원과 재무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창업역량은 기술사업화지원과 비재무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창업역량은 창업교육지원과 재무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창업역량은 창업교육 지원과 비재무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창업역량은 창업컨설팅지원과 재무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창업역량은 창업컨설팅지원과 비재무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이 채택되고, 창업역량은 창업자금지원과 재무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창업역량은 창업자금지원과 비재무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창업역량은 창업마케팅지원과 재무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창업역량은 창업마케팅지원과 비재무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창업역량은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 중 기술사업화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컨설팅지원과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나 창업자금지원, 창업마케팅지원은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간의 관계에 매개역할이 없음이 나타났으므로 창업성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자금지원을 더 강화하고 창업역량은 창업성고에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기술사업화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컨설팅지원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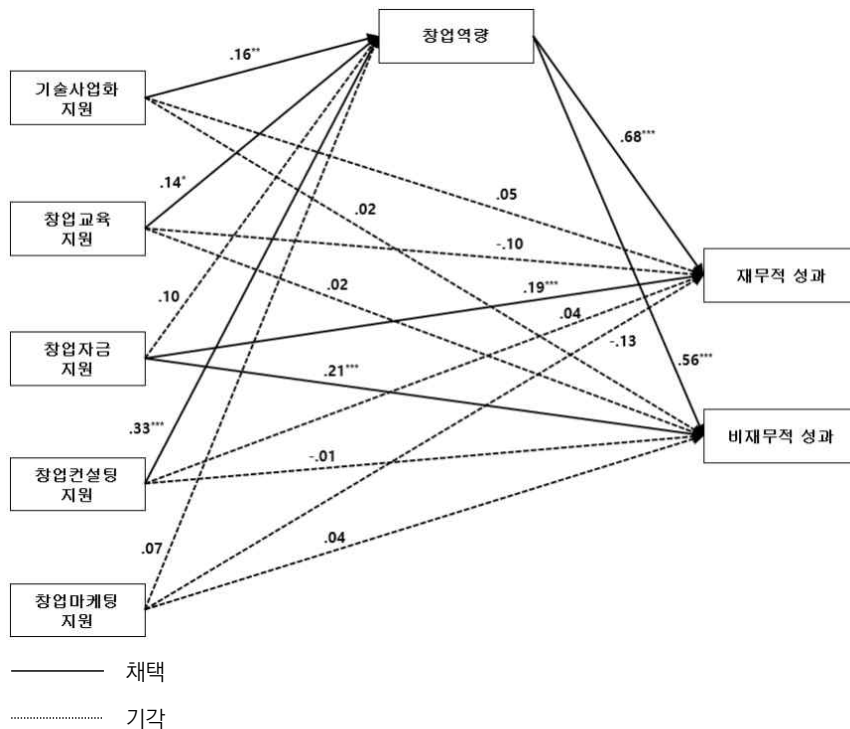
〈표 10〉 매개효과 검증

Path	B	SE	β	가설 검증결과
기술사업화 지원→창업역량→재무적 성과	.09	.04	.11*	채택
기술사업화 지원→창업역량→비재무적 성과	.07	.04	.09*	채택
창업교육 지원→창업역량→재무적 성과	.09	.04	.10*	채택
창업교육 지원→창업역량→비재무적 성과	.07	.03	.08*	채택
창업자금 지원→창업역량→재무적 성과	.06	.04	.07	기각

창업자금 지원→창업역량→비재무적 성과	.04	.03	.05	기각
창업컨설팅 지원→창업역량→재무적 성과	.19	.05	.22***	채택
창업컨설팅 지원→창업역량→비재무적 성과	.15	.04	.18***	채택
창업마케팅 지원→창업역량→재무적 성과	.04	.04	.05	기각
창업마케팅 지원→창업역량→비재무적 성과	.03	.03	.04	기각

*p<.05, ***p<.001

〈그림 2〉 시각화 결과



V. 결론

정부에서는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업의 생존 유지를 위해 창업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방법 및 지원유형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실제로 창업기업 중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수혜를 신청하거나 신청하였어도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기업은 한정적이다.

또한, 창업의 양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창업의 질적인 성과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정된 정부의 예산으로 창업성장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의 유형을 살펴보고 창업지원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합한 창업지원사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 컨설턴

트를 대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사업인 기술사업화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지원, 창업마케팅지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창업성과를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로 나누어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창업역량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사업화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지원, 창업마케팅지원과 창업역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창업지원사업과 창업성과에 대하여 창업역량이 매개변수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는 창업지원사업 중 기술사업화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컨설팅지원, 창업마케팅지원은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창업자금지원은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역량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는 창업역량은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역량과의 관계에서는 기술사업화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컨설팅지원은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치나 창업자금지원과 창업마케팅지원은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창업역량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창업역량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중 기술사업화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컨설팅지원과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창업자금지원, 창업마케팅지원은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창업지원정책으로 창업역량과 창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컨설팅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본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창업컨설팅트트의 인식조사에 의존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창업컨설팅트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창업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향후에는 보다 직접적인 기업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세훈(2011). 중소벤처기업의 경쟁전략과 경영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도희(2021). 청년 창업자의 창업지원이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의 조절효과. 『Entrepreneurship&ESG연구』, 1(1): 92-117.
- 김동현(2011). 중소기업의 마케팅 환경과 역량이 마케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케팅 성과모델을 이용한 수도권 중소기업의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상만(2019). 창업기업의 기술관계능력과 창업자경험이 흡수역량, 기술준비도 및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 김성식·전병훈·윤성임(2020).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벤처창업연구」, 15(6): 95-114.
- 김성진(2022). 초기 창업가 역량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창업대학원.
- 김윤진(2014). 창업기 벤처기업의 창업성과와 조직학습 및 기업가 지향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의근(2007). 외식 가맹본부의 지원이 가맹점과의 관계결속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 김종명(2019). 창업교육, 정부지원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종식(2017).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창업 역량을 매개 변수로.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 남정인(2013). 창업멘토링이 창업태도와 창업의도 간에 미치는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노두환·정영근·박호영(2016).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벤처창업연구」, 11(1): 1-12
- 박경주(2006). 정책 연구: 창업보육센터 재정지원과 운영성과와의 관계연구: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9(3): 159-185.
- 박남규(2015).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 박상욱·김연중·송인방(2022). 창업지원사업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들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7(2): 215-236.
- 박윤희(2004). 창업의도에 관한 통합적 문헌 고찰: 국내외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기업교육학회, 22(3): 257-295.
- 박해근(2018). 창업초기기업 기술사업화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서영표(2021). 기술창업기업 CEO의 역경지수와 창업가적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송세영(2022). 기술창업기업의 지식경영관리 역량과 기술 전문적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신유섭(2013).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니어창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신윤철(2007). 공업계 고등학교의 비즈쿨 운영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한

- 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태욱·한동희·강태원(2019). 창업가 역량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 지원제도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1): 73-83.
- 유상정(2016). 의사결정성향과 창업지원사업이 시니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윤병선·서영욱(2016). 창업기업의 준비 및 초기단계 활동들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4): 1-15.
- 윤소영(2017).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분야 창업지원 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은경아(2006). 글로벌마켓에서의 한국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마케팅방안에 대한 연구: 고급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 이강현·이호택(2019).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창업가정신과 창업기업역량 그리고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19(1): 43-55.
- 이상화(2015). 창업가정신,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플로우(Flow)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5): 137-150.
- 이용희·홍광표·정유섭·박수홍(2016). 벤처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전략 개발.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18(1): 133-157.
- 이주연(2018).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지역 문화콘텐츠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임승준(2017). 창업지원사업이 청년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 대학원.
- 장선희(2021). 정부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장영혜·현선진·김판수(2021).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의 만족도가 창업가의 기술창업역량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6(4): 52-70.
- 정경희(2020).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5(1): 59-70.
- 조상미·이경미·정지연·최수희(2019). 다문화여성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의미와 정책적 과제. 「한국창업학회지」, 14(6): 494-527.
- 조중연(2016). 소상공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및 창업 준비수준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 중소벤처기업부(2022). 2022년 창업지원사업통합공고. 2022.01.04.
- 최재성(2013). 창업자의 영업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 최종열·Choi Jong Yeo(2013). 기술창업기업의 기술보유유형과 성과와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8(1): 29-36.
- 황경연·성을현(2015).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벤처기업 혁신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혁신

- 지원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지」, 31(1): 63-80.
- Baum, J. R., E. A. Locke & K. G. Smith(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handler, G. N.m and Hanks S. H. (1994).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331-349.
- Covin, J.G &Slevin, D.P.(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The Journal of Marketing」, 58(4): 37-52.
- Day, G.S.(1994). The capabilities of market-driven organizations.
- Ford, J. K., MacCallum, R. C., & Tait, M. (1986). The application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applied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39(2): 291-314.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The Guilford Press.
- Kram, K. E.(1985). Phases of the mentor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4): 608-625.
- Spencer, L., & Spencer, S.(1994). Competency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Apress.
- Stuart, R. W., & P.A. Abetti(1987). "Start-up Venture: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15-230.

강진규(姜鎭奎): 광운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경영지도사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부회장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창업지원정책,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컨설팅, 사회적기업, 일자리정책 등이다.(krokmc567@hanmail.net)

이혜영(李惠榮):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규제정책, 기업규제, 성과관리 및 평가이며, 최근 논문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과 시사점(2022), 규제비용 측정의 실태와 한계(2021, 공저) 등이 있다.(hylee@kw.ac.kr)

Abstract

The Impact of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olicy on Start-up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tart-up Capabilities

Kang, Jin kyu

Lee, Hye Young

The government is actively supporting start-ups through the development of various policies on start-ups to create growth engines and jobs in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creation of a start-up ecosystem. Due to these start-up support policies, start-up companies sometimes achieve results, but they often fail.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various start-up support policies and start-up performance.

Accordingl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the government's various start-up support policies on start-up performance ba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tart-up capabilities. In particular,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tart-up capabilities for various and wide-ranging start-up support policies of th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start-up capabilities had a positiv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pport, start-up education support, start-up consulting support and start-up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non-financial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at start-up capabilities affect start-up perform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olicy and start-up performance were presented.

Key Words: start-up, start-up support Policy, start-up performance, start-up capabilities, start-up consultant